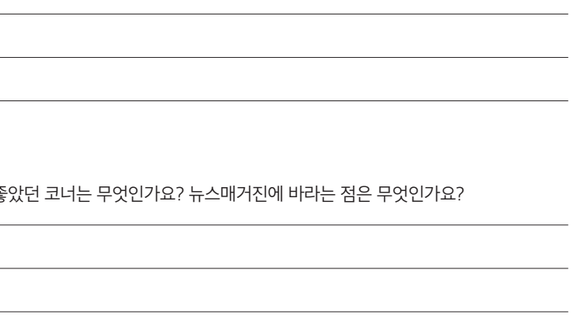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입자치료센터 공사에 따라 주차동 우회도로가 8월 31일 개통됐다. 새 우회도로는 원활한 원내 차량 흐름을 위해 교육연구관과 주차동 사이에 마련됐으며, 중입자치료센터가 완공되는 2031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사진은 9월 3일 주차동 우회도로를 이용해 병원을 나가는 내원객 차량들의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매거진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호 정답



제779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AMC IN(人)sight - 아이 부모가 응급이라 느끼면 응급 환자로 받아들이고 진단을 시작합니다'**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특수검사팀 안수민 사원이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10월 1일(목)
발표 제783호(2026년 10월 15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손채원(외과간호2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솔지(외래간호팀)
맹보라(수술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고현수(핵의학팀)
정문영(간호교육행정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김승민(재활의학과)
안다솜(외과간호2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영은(류마티스내과)
신선명(중앙공급팀)
신은숙(진단검사의학팀)
우주연(어린이병원간호팀)
정보라(응급간호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81 2026. 9. 15



소외계층과 함께한 32년, '더 큰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 병원은 무의촌, 저소득층 밀집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찾아 건강을 돌보는 의료봉사를 32년째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무료 진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의료 취약지역을 찾은 의료봉사 버스의 누적 운행거리는 약 31만 km에 달한다. 의료 소외지역을 꾸준히 찾아온 우리 병원의 발걸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 우리 병원은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공간과 장비를 개선한 신형 의료봉사 버스를 새로 도입했다. 사진은 9월 8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은 사회복지팀 전성훈 교수(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직원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이 신형 의료봉사 버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4면)

02 NEWS 99세 환자 대동맥 수술 후 100세 생일 축하해 준 의사
07 AMC 광장 치료에서 일상까지 '위드원(WithONE)'
08 AMC IN(人)sight 정신건강의학과 주성우 조교수
16 사람 & 이야기 '마음지기' 한 걸음 더 가까이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병원 소식을 한눈에

1995년 5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다 06386 **발행인** 박승일 **편집인** 노영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Tel** 1688-7575 **홍보팀 Tel** 02-3010-3096 **디자인인쇄** 큐라인

99세 환자 대동맥 수술 후 100세 생일 축하해 준 의사



심장혈관흉부외과 구민정 조교수(왼쪽 첫 번째)가 이승만 환자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보호자인 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구 조교수가 준비한 케이크.

심장혈관흉부외과 구민정 조교수팀이 최근 만 99세 초고령인 이승만(남)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대동맥 박리 수술 환자로서는 국내 최고령이다.

1926년 8월 5일 태어난 환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고령의 나이에도 실내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만큼 건강한 편이었다. 그러던 6월 28일 늦은 밤, 환자는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와 구토 증상으로 우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흉부 CT 검사 결과 대동맥 박리가 발견됐다. 특히 심장과 가까운 상행대동맥 부분에서 박리가 나타나 초응급 수술이 필요했다.

6월 29일 새벽, 구민정 조교수팀은 환자의 가슴을 열어 손상된 대동맥을 인조 혈관으로 교체하는 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했다.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대동맥 부위가 노출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위급 상황도 발생했지만 의료진은 신속하게 심폐순환을 시행해 환자의 혈압과 순환을 유지하며 수술을 이어갔다.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환자는 무사히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한 달간의 집중 치료 후 일반 병실로 이동했다.

8월 5일에는 순조로운 회복세를 이어가던 환자가 병실에서 100번째 생일을 맞았다. 수술을 집도한 구 조교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환자를 위해 직접 케이크를 준비해 의료진과 함께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이승만 환자는 "한평생 병실에서 맞는 생일은 처음이다. 목숨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복에 겨운 축하까지 해준 우리 선생님께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20년 넘은 만성 중이염 난청, 인공와우로 청각 회복



박홍주 교수

20년 이상 난청이 지속된 만성 중이염 환자도 인공와우 수술 후 일반 난청 환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비인후과 박홍주 교수팀은 200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후천성 만성 중이염 환자 33명과 비염증성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 70명의 수술 전후 청력 및 영상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 1년 후 만성 중이염 환자군의 단어인지명료도, 순음청력역치 등 전반적인 청각 검사 결과가 일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군과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청 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일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군은 수술 후 단어인지명료도가 크게 감소한 반면, 만성 중이염 환자군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연구팀은 만성 중이염 환자에게 남아 있는 골도 청력이 지속적으로 청각을 자극해 청각 경로와 신경 기능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만성 중이염 환자의 9.1%가 내이염을 동반했으며 이 경우 수술 후 단어인지명료도가 현저히 낮았다.

만성 중이염 환자는 중이와 유양동에 만성적인 염증이나 해부학적 변형을 동반한다. 이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전극 돌출 등의 위험이 높아 수술이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다. 연구팀은 염증을 제거하고 지방이식으로 중이강을 채운 뒤 인공와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청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켰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비인후과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아산재단, 네팔 홍수 이재민 구호 위해 20만 달러 지원



정몽준 이사장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9월 7일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2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성금은 식량·생필품 지원, 의료 지원 등 피해 주민들의 긴급 구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산재단은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0만 달러를 전달하는 등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성금을 지원해 왔다.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과 고려인 지원을 비롯해 2018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2015년 네팔 지진 피해,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2010년 파키스탄 홍수 피해, 2006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등 지금까지 해외 구호 사업에 약 21억 원을 지원했다.

국내 재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도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경북 산불 및 수해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해 8억 원, 2020년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에 10억 원,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1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KT와 의료 AX 협약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박승일 병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9월 10일 KT와 의료 AX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AX는 의료 서비스와 병원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을 뜻한다. 이날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승일 병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김영학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 최종우 기획조정부실장, 양동현 AI혁신지원실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우리 병원의 의료 질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의료 AX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 과제의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의 AX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기기증 캠페인



자재팀 권기수 차장(왼쪽 세 번째)이 장기기증 희망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장기이식센터와 사단법인 생명잇기가 함께 주최한 제5회 장기기증 캠페인이 9월 11일 동관 직원식당 앞에서 진행됐다.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직원 및 내원객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78명이 장기기증 희망 서약서를 작성했다.

황신 장기이식센터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장기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병원 내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신 장비 갖춘 의료봉사 버스 새단장



9월 8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봉사에 참여한 영상의학팀 강병현 주임(오른쪽)이 신형 의료봉사 버스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9월 1일 최신 의료장비와 진료 시스템을 갖춘 신형 의료봉사 버스를 새로 도입했다. 이동진료가 중심인 의료봉사 환경에 맞춰 내부 공간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신형 버스는 새 엑스레이 장비를 탑재해 영상 품질과 전송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별도 배터리를 장착해 발전기 사용을 줄였다. 장비와 의료물품도 효율적으로 배치해 제한된 공간에서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무거운 장비를 옮길 때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칸 바닥에 슬라이딩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신형 이동진료 버스는 전남 영광군 의료봉사에 처음 투입된 데 이어 9월 8일 경기도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두 번째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료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우리 병원 직원 7명이 참여했다. 의료진은 신형 버스의 진료 장비를 활용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특히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받도록 접수부터 검사, 진료까지 현장 동선을 세심하게 운영했다.

사회복지팀 전성훈 교수는 "신형 버스 도입으로 취약계층 환자 편의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병원은 1995년 무료 순회진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22만 6,000명을 진료했다. 전국 곳곳을 찾아간 의료봉사 버스의 누적 운행거리는 약 31만 km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을 380회 왕복하고 지구를 7바퀴 넘게 돌 수 있는 거리다. 앞으로도 신형 버스를 활용해 의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맞는 진료와 건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칭찬·협업 우수상



2분기 고객칭찬 최우수상을 받은 내과간호1팀 오유미 대리(왼쪽)가 박승일 병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분기 고객칭찬·협업 우수직원 시상식이 8월 26일 진행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은 내과간호1팀 오유미 대리가, 고객칭찬 우수상은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 등 15명이 받았다. 협업 우수상은 내과간호2팀 강지연 주임 등 4명이 수상했다. 고객칭찬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 원, 고객칭찬 우수상과 협업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3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 꽃다발, 기념품이 전달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 내과간호1팀 오유미
고객칭찬 우수상 소화기내과 김도훈, 영상의학팀 박미조, 심장검사팀 박정애, 어린이병원간호팀 박지원, 외과간호1팀 박지원, 암병원간호2팀 배지수, 암병원간호1팀 서은채, 내과간호1팀 송재인, 외과간호1팀 송현우, 위장관외과 오정아, 외과간호2팀 이민주·이유빈, 어린이병원간호팀 정진아, 산부인과 최민철, 심장병원간호팀 최인영
협업 우수상 내과간호2팀 강지연, 교육수련실 금하림, 영상의학팀 윤소영, 원무팀 최연식
(2026년 2분기 기준, 이름 가나다순)

의무기록 작성 우수 진료과·전공의



의무기록 작성 우수 진료과·전공의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이제환 진료부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의무기록 작성 우수 진료과·전공의 시상식이 9월 1일 동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시한 내 완결률 ▲작성시한 초과 완결률 등의 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진료과 부문에서는 심장내과가 의무기록 향상 우수 진료과로 선정됐다. 최우수 레지던트 부문에는 내과 최민기 레지던트와 성형외과 장서연 레지던트가, 우수 레지던트 부문에는 내과 문태진 레지던트 등 12명이 선정됐다. 우수 인턴 부문에는 금하림 인턴이 선정됐다. 최우수 레지던트와 우수 레지던트·인턴에게는 각각 60만 원과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의무기록 향상 우수 진료과 심장내과
최우수 레지던트 **내과계** 내과 최민기, **외과계** 성형외과 장서연
우수 레지던트 **내과계** 내과 문태진, 가정의학과 배지은, 신경과 안효경, 소아청소년과 유평화, 정신건강의학과 윤성민, 재활의학과 이영규
외과계 정형외과 나찬우, 신경외과 박승호, 산부인과 신승민, 비뇨의학과 이광준, 외과 이기홍, 이비인후과 정민선
우수 인턴 교육수련실 금하림
(2026년 상반기 기준, 이름 가나다순)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



8월 30일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화기내과가 주관한 제14회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이 8월 30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관련 의료진 약 250명이 참석해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 ▲다학제 진료를 통한 협력의 성과 등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예병덕 염증성 장질환 센터소장은 "최근 임상에서는 질환의 특성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환자 맞춤형 관리와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 연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간안내



R을 이용한 다변량 자료분석

지은이: 배균섭 외
페이지: 376쪽
펴낸곳: 자유아카데미
발행일: 2026년 8월 31일

임상약리학과 배균섭 교수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R'을 활용한 다변량 자료분석 방법론을 익힐 수 있도록 정리한 책 'R을 이용한 다변량 자료분석'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벡터와 행렬 등 기초 이론부터 호텔링의 T^2 검정, 다변량 분산분석, 주성분분석, 요인분석에 이르기까지 다변량 자료분석의 주요 개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연구자가 연구 질문과 자료의 특성에 맞는 분석 방법을 스스로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정

최인철 교육부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최인철 교육부원장이 8월 19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 교육부원장은 의학 학술 콘텐츠를 체계화해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이상욱 부교수 연구비 지원사업 선정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욱 부교수가 최근 대한기도관리학회 연구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부교수는 '동형암호를 활용한 얼굴 영상 기반 어려운 기도 예측 모델의 개발 및 프라이버시 보존형 임상연구'를 주제로 2026년 9월부터 2년간 연구를 수행한다.

김현진 조교수 신경면역연구자상



신경과 김현진 조교수가 8월 22일 대한신경면역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신경면역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신경면역연구자상은 신경면역학 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은 연구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김 조교수는 '단일세포 전사체 기반 면역세포-근섬유 상호작용의 공간적 검증: 봉입체근염과 면역매개괴사근염 비교 연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김성민 조교수 학회서 수상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성민 조교수가 8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간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LT UPDATES 2026)에서 수상했다. 김 조교수는 'ABO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에서 극도로 높은 기저 동종응집소 역가가 이식 후 임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최우수초록상을, 간이식·간담도외과 문덕복 교수와 함께 '대사성 간질환에서의 보조 부분 동소성 간이식'을 주제로 비디오발표상을 받았다. 또한 '간세포암 간 절제 후 재발 환자에서 구제 간이식의 장기 성적: 비이식 치료군과의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학회 연구비 지원대상에도 선정됐다.

김나현 임상강사 국제학회논문상



내분비내과 김나현 임상강사가 8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학회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임상강사는 '2015년 및 2025년 미국갑상선학회(ATA) 위험도 분류 체계에 따른 갑상선 유두암 재발 예측 비교'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인사

보직임명

대장항문외과	교수	임석병	임 : 외과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중선	임 : 정신건강의학과장
산부인과	교수	김성훈	임 : 산부인과장
이비인후과	교수	정유삼	임 : 이비인후과장
재활의학과	교수	김 원	임 : 재활의학과장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구승우	임 : 마취통증의학과장 겸 : 수술실장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윤상민	임 : 방사선종양학과장
유방외과	교수	김희정	임 : 유방외과장
위장관외과	교수	이인섭	임 : 위장관외과장 겸 : 외과 의국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석훈	임 : 스트레스상담센터소장
신경과	부교수	박 진	임 : 신경과 의국장
정형외과	교수	조재환	임 : 정형외과 의국장
이비인후과	부교수	권민수	임 : 이비인후과 의국장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고원욱	임 : 마취통증의학과 의국장
대장항문외과	조교수	김영일	임 : 대장항문외과 의국장

- 2026. 9. 1 부.

이달의 후원자

(단위: 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송화재단	10,000,000
아가트코리아	10,000,000
조윤경	40,000,000

불우환자 지원

김윤옥	1,000,000
정지혜	100,000
허김의진	2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김종구·김다은	5,000,000
원혜성	10,000,000

- 2026년 8월 31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치료에서 일상까지 '위드원(WithONE)'



이은주
노년내과장·시니어환자위원회 위원장

진료 현장에서 고령의 환자들과 눈을 맞추다 보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눈빛에서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검사 수치도 좋아졌지만 퇴원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선생님,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죠?" "소변줄을 차고 가셔야 하는데 제가 멀리 살아서 걱정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병원 안에서의 치료는 크게 발전했지만, 환자가 병원 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보이지 않는 '돌봄의 공백'이 존재한다. 최근 입원했던 한 어르신이 떠오른다. 혼자 생활하던 환자로 체중 감소가 심했고 하지 근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입원 중 섬망까지 발생했고 임상허약척도(CFS) 6으로 낙상 위험도 높았다. 유치도뇨관을 유지한 채 퇴원해야 했지만 자녀는 멀리 살고 있어 구리시 자택으로 혼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전 같았다면 각 진료과의 처방과 퇴원 안내에 그치거나 자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등 별도의 돌봄 방법을 찾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합돌봄 '위드원(WithONE)'을 통해 입원 초기부터 다학제팀이 함께 움직였다.

위드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종이 함께(With) 한 명의 환자(ONE)를 중심에 두고 치료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연결하는 통합돌봄체계다. ACE(시니어환자관리)팀의 4M 중 하나인 영양팀(Matter)은 영양 상태를 확인해 영양음료 병용 및 맞춤 상담을 진행했고, 재활의학팀(Mobility)은 병상 물리치료와 시니어자가 재활 영상을 활용해 입원 중 근력 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 약제팀(Medication)은 섬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조정하고 퇴원 후 복약 방법을 안내했다.

IDP(퇴원계획)팀은 퇴원 후 돌봄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사회복지사(Matter)는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의 식사·동행 지원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었고, 가정간호팀은 퇴원 후 자택을 방문해 유치도뇨관 관리와 건강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퇴원 후 궁금하거나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문의센터까지 연결해 드렸다. 지원이 이어지자 어르신은 물론 멀리 떨어져 사는 따님 역시 비로소 안심하고 자택에서의 회복을 준비할 수 있었다.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도입되면서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를 비춰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됐듯, 고령 중증환자 진료에도 병원 안의 치료를 넘어 퇴원 후 일상의 위험까지 살피는 시선이 필요하다. "현장도 바쁜데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직원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것은 업무와 부담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채널을 하나로 모으고 불필요한 반복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병원 안에서 정성껏 제공한 치료가 퇴원과 동시에 단절되지 않고 환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어지도록 돕는 과정이다.

환자가 퇴원 후에도 병원과 연결되어 있으니 안심이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오늘 한 사람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위드원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병원의 모습이다. 환자가 치료를 넘어 자신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어가는 이 여정에 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치료를 넘어 환자 삶이 다시 이어지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주성우 조교수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며 치료를 거부하던 20대 초반의 환자가 있었다. 조울증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더 이상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안정 병동에 입원했다. 주성우 조교수는 약 복용을 거듭 설득했다. 이를 힘겹게 받아들인 환자는 5년 이상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도 성공해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것만으로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주성우 조교수는 현재의 증상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치료 목표를 두고 있다.

환자의 삶을 오래 바라보며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의학을 배우고 제 관심사에 접목하면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교정해 나가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첫발을 들이게 됐죠." 수련 과정에서 성격장애나 불안장애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폭넓은 환자를 만났다. 그중에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치료는 다소 어렵고 위험한 면이 많지만, 치료를 통해 원만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환자들에게서 임상적인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조현병이나 조울증,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중증 우울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은 대부분 20대 초반에 발병한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저는 보통 '모래시계'에 비유하는데요. 태어날 때 모래시계가 뒤집혔다가 모래가 다 떨어지면 유전적인 원인이 발현되는 거죠. 사회적 교육이나 기술, 인간관계가 채 형성되지 못한 시기에 질병이 발현되면 치료 후 회복할 기능 자체가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일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절망적으로 여기고 치료를 중도 포기하곤 한다. 버틸 만하다며 약을 끊으면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은 70~80%에 달한다. 질환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다양한 기능 장애를 경험하거나 재발할 때마다 복용하는 약의 가짓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찰하는 것이 주 조교수에게 중요한 과제다.

단순한 약 처방을 넘어 '도와주겠다'라는 의지를 전달할 때 환자들은 큰 위안을 얻는다. 펠로우 시절부터 만난 환자들과 7~8년의 인연을 이어오는 이유다. 함께 나이 들어가며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에 진료의 가치가 담긴다.



희망을 남기는 적극적인 치료

주 조교수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은 난치성 환자에게 이곳이 마지막 병원이라는 데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 처방이나 전기경련치료(ECT) 등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전기경련치료는 뇌에 전기 자극을 줘 경련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난치성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때로는 의료진조차 예상하지 못한 호전을 가져오기도 한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환자의 감정은 부정적으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저라도 환자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를 끝까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권해야죠. 환자분들은 꼭 완치되지 않더라도 치료 가능성을 찾아준 것 자체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세요.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볼 수 있다, 이 의사를 찾아가면 된다는 생각의 차이가 큰 힘이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무조건 환자의 뜻에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조건적인 강제 입원을 요구하는 보호자에게 장기적 관점의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진단에 불만을 품고 의무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는 임상적 관찰 결과에 따른 것임을 이해시킨다. 때로는 치료에 필요한 명확한 선을 판단하고 지키는 것이 환자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치료를 넘어 사회적 시스템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연구로 이어진다. 그는 현재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원인과 유전적 소인을 밝히는 바이오마커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혈액 검사, 유전자 연구, 뇌 MRI 등을 활용해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 기준을 세우고 장기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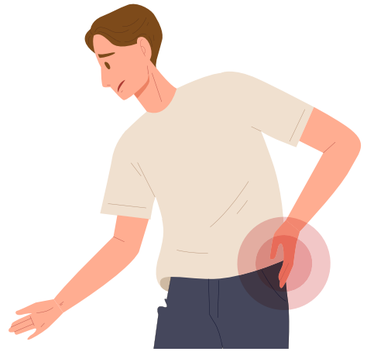
하지만 의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은 환자 스스로 치료를 결정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부담이 극에 달하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 퇴원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가 중단되고,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채 재입원하는 악순환도 빈번하다. 주 조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개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맡기기보다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 사례처럼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나 퇴원 후 사회 복귀를 돕는 '통합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가 되어서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과 국가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운전 뒤 찾아오는 허리 통증 이유가 있다



신경외과 신홍경 조교수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열 시간 가까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며칠 사이 반복되기도 한다. 요통은 성인의 약 80%가 일생에 한 번은 겪을 만큼 흔한 증상이지만 장시간의 운전이 이어지면 허리에 누적된 부담이 통증으로 나타나기 쉽다. 연휴가 끝난 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허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방법을 정리했다.

운전석이 허리에 가혹한 이유

서 있거나 누워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추간판, 즉 디스크에 실리는 압력이 더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채 앉으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은 몇 배로 올라간다. 여기에 운전이라는 상황이 더해지면 허리의 부담은 한층 커진다. 차량의 미세한 진동이 끊임없이 척추로 전달되고, 가속과 제동이 반복되면서 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전 중에는 자세를 바꾸기도 쉽지 않다. 사무실 의자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지만 운전석에서는 같은 자세가 몇 시간씩 이어질 수 있다. 정체 구간이 이어지면 골반이 뒤로 밀리면서 허리는 더 굽고 디스크 뒤쪽에 압력이 집중된다. 목적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통증이 갑자기 느껴지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근육통과 디스크 증상은 다르다

운전 후 생긴 허리 통증이 모두 디스크 때문은 아니다. 허리 주변이 뻐근하고 묵직하다가도 자세를 바꾸거나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아지는 통증은 대개 근육과 인대의 피로에서 비롯된다.

반면 눈여겨봐야 할 신호도 있다. 허리보다 엉덩이와 다리가 더 아프고 종아리나 발까지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이 이어지는 경우다. 이런 통증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척추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뿌리를 누르면서 생기는 방사통으로, 흔히 말하는 좌골신경통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다리로 통증이 이어지거나 앉아 있을 때 유독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추간판탈출증, 이른바 허리디스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와 함께 발목이나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며칠이 지나도 다리 통증이 줄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양쪽 다리가 함께 저리면서 소변을 보기 어려워진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두 시간마다 5분, 예방이 최선

예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분명하다. 두 시간에 한 번은 차를 세우고 5분 정도 걷는 것이다. 휴게소에서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허리를 가볍게 뒤로 젖히는 동작을 열 번 정도 반복한 뒤 잠시 걷기만 해도 디스크에 집중된 부담을 덜 수 있다.

운전할 때 좌석은 등받이를 100~110도 정도로 약간 눕히고 엉덩이를 등받이 끝까지 깊숙이 붙여 앉는다. 허리와 등받이 사이의 빈 공간에는 얇은 쿠션이나 말아 놓은 수건을 받쳐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골반이 뒤로 말릴 수 있으므로 좌석 높이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페달을 밟지 않는 왼발은 페달 왼쪽의 받침대에 올려 두는 것이 좋다. 발이 안정적으로 지지되면 상체 무게의 일부를 두 다리가 나눠 받고 골반이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 허리에 실리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은 채 운전하거나 한쪽 팔로만 핸들을 잡는 자세는 모두 골반을 비틀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동승자가 있다면 한두 시간씩 번갈아 운전대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은 수술 없이 좋아진다

증상이 지속되고 근육통이 아닌 허리디스크로 진단받더라도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무리한 스트레칭이나 강한 마사지보다 안정을 취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다고 며칠씩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다. 통증이 견딜 만해지면 일상 활동을 조금씩 늘려 가는 편이 좋다. 치료는 진통제와 근이완제 같은 약물치료로 시작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다리 저림이 뚜렷하면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4~6주 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면 상당수는 증상이 가라앉는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급성기가 지나면 치료의 무게중심은 운동으로 옮겨 간다. 허리와 배 주변 근육을 단련해 척추를 받쳐 주는 힘을 키우고, 걷기나 수영처럼 허리에 충격이 적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습관도 중요하다. 이런 치료로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허리 통증은 대개 몸이 보내는 경고다. 이번 연휴에는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해 두 시간마다 쉬어 가길 권한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통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참고 견디기보다 척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계 최고의 로봇 간 수술 노하우 배우러 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온 탄 히앙 진 전문의



저는 싱가포르 창이 종합병원(Changi General Hospital) 외과 전문의입니다. 싱가포르 최대 의료 클러스터인 싱헬스(SingHealth)에서 수련을 마친 뒤 간담도외과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받은 선배 의사의 강력한 추천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난도나 건수 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에 다른 고민은 하지 않았죠. 매일 고난도 수술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로봇 간 절제 수술을 보조하고 있는 탄 히앙 진 전문의

싱가포르보다 앞선 로봇수술 인프라에 감탄했어요!

싱가포르도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를 갖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에서도 복강경 등을 활용한 최소침습 수술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하지만 로봇수술은 아직 시스템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수술실에서 경험한 로봇수술 인프라는 싱가포르 전체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느꼈어요. 첨단 장비도 놀랍지만 숙련된 의료진의 로봇수술 노하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기 위해 늘 서관 C로젯 수술로봇 옆을 지키고 있답니다(웃음).

첨단 기술을 결합한 고난도 로봇수술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도교수인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지훈 교수님께 3차원 영상과 형광 조영 기법 등을 활용한 로봇 간 절제술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간은 혈관이 많고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해 매 수술이 고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술은 다발성 전이로 간 전체에 있는 7개의 결절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절제해야 하는 결절들만 형광 물질로 명확히 구분해 제거하고 환자의 간 기능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정상 간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경험할수록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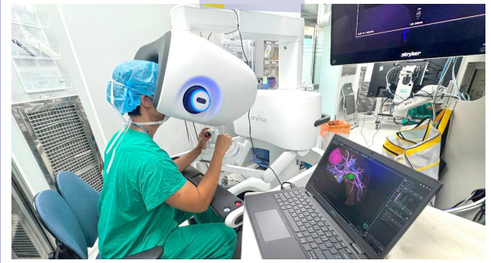




민둥산 정상(왼쪽), 대둔산 삼선계단(오른쪽)에서 인증샷!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심포지엄에서 김지훈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 감사합니다!



로봇수술 노하우를 익히기 위한 연습, 반복 또 반복!

여행과 등산은 한국 생활의 활력소예요!

주말에는 병원을 떠나 동료 해외의학자들과 한국 곳곳을 여행하는 편이에요. 속초, 단양, 강릉, 안동, 공주, 제주, 부산, 경주, 춘천… 정말 많이 다녀왔죠? SNS로 한국 여행지를 자주 찾아보기도 하고, 교수님과 동료들에게 맛집과 명소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한국의 산입니다. 싱가포르는 대부분 평지라 산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산마다 매력이 모두 다르고, 사계절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에 푹 빠졌어요. 민둥산 정상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대둔산 삼선계단을 오를 때의 아찔함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원 팀’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12월이면 연수를 마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는 간이식·간담도외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여러 국제학회뿐만 아니라 진료과 콘퍼런스와 회식 때마다 저를 비롯한 해외의학자들을 항상 초대해 주었거든요. 외국인임에도 ‘원 팀’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싱가포르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로봇 간 절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봇 간 수술 프로토콜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중증 간질환 환자 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함께 연구하는 AI ‘AMIST’

논문 검색부터 영상·데이터 해석까지 하나로



의공학연구소·재활의학과·정형외과 연구팀

‘연구할 시간’을 돌려주는 AI

의료 연구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환자의 회복 양상은 일반적인가?’ ‘이 소견과 관련된 연구는 얼마나 나와 있을까?’ ‘수술 전후 영상과 검사 결과를 함께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실제 연구로 발전시키려면 논문과 임상시험을 검색하고, 환자 데이터를 정리하고, 영상을 분석한 뒤 결과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PubMed에, 환자 정보는 EMR과 검사 결과에, 영상은 PACS에, 기능 평가와 설문 자료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가 논문 검색이나 자료 요약에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 작업을 돕는 수준입니다. 결국 연구자는 여러 AI와 분석 프로그램을 오가며 각 결과의 연관성을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AI 에이전트 ‘AMIST(AMC Motion Intelligence Science Team)’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6 AI 동료 연구자(Co-Scientist)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자가 단순 자료 조사나 코딩 보조를 넘어,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공동 연구자’ 수준으로 AI를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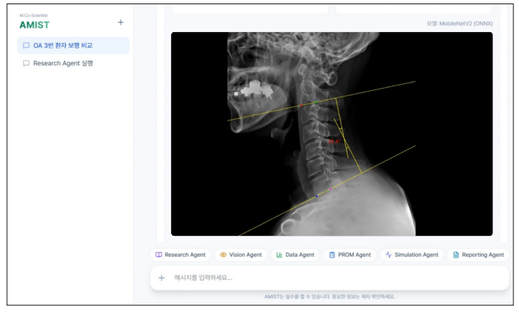
AMIST는 하나의 AI가 모든 문제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전문 AI들이 하나의 연구 질문을 함께 해결합니다. 연구자가 “이 환자의 수술 전후 상태를 분석하고 관련 연구도 찾아줘”라고 질문하면 ‘Supervisor Agent’가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합니다. 환자 검사·기능 평가 결과는 ‘Data Agent’가 분석하고, 관련 논문과 임상시험은 ‘Research Agent’가 검색합니다. X-ray나 보행 영상이 있다면 ‘Vision Agent’가 정량 지표를 추출하고, ‘Simulation Agent’가 생체역학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합니다. PROMs(환자자기평가도구) 설문은 ‘PROM Agent’가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Reporting Agent’가 결과를 통합해 임상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즉 논문 PDF를 넣으면 논문 검색과 분석으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넣으면 데이터 분석으로, 의료 영상이나 임상 동영상을 넣으면 영상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연구자가 어떤 AI를 선택해야 하는지 일일이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의 대화창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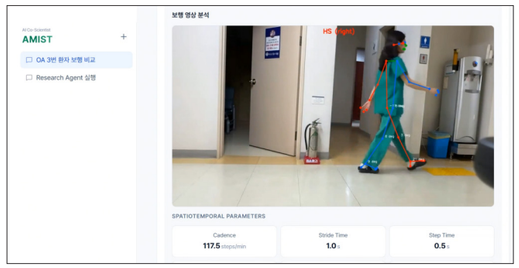
논문도 찾고, 환자 데이터도 함께 본다

AMIST에서 특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Research Agent입니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PubMed, OpenAlex, Semantic Scholar, ClinicalTrials.gov와 내부에 축적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검색합니다. 의학용어를 MeSH(미국국립의학도서관 의학분류) 기준으로 확장하고, 의미 기반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결합해 성능을 높였습니다. 관련 임상시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연구 중복 여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문헌 RAG 검색 시간이 약 48초에서 1.6초로 줄어 약 30배 빨라졌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빨리 찾는 것보다, 문헌을 검색·선별하고 연구 질문과 다시 연결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환자 데이터 역시 같은 흐름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Data Agent가 수술 전후 검사값이나 보행 지표의 변화를 비교하고, Vision Agent가 경추 X-ray의 콥 각도(Cobb’s Angle)를 자동 측정하거나 환자 영상 속 보행 속도, 보폭, 대칭성 등을 정량화합니다. 이후 “이 환자에게서 관찰된 변화가 기존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가?”라고 질문하면 앞서 분석된 환자 정보가 다시 문헌 검색의 조건으로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환자 관찰과 논문의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AMIST가 지향하는 핵심입니다.



Vision Agent를 활용한 경추 X-ray 콥 각도 자동 측정 및 분석 결과



Vision Agent를 활용한 영상 기반 보행 분석 및 시공간 보행지표 자동 산출 결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연구자의 판단을 돕는다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럴듯하지만 틀린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입니다. AMIST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결과를 만드는 AI와 이를 검증하는 AI를 분리했습니다. ‘Critic/Verifier’가 근거의 충분성, 신뢰도, 안전성과 결과 간 일관성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AI 모델을 이용해 교차 검증합니다.

그러나 AI 검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분석 결과는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반려·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AI가 반복적인 검색·정리·계산을 맡고, 최종 연구 질문과 해석은 사람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연구자의 교정으로 AI 에이전트는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의료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용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95%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기존 업무 대비 효율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75%에 달했습니다. 85%는 임상 현장 도입에도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논문을 탐색하는 Research Agent, X-ray를 정량 분석하는 Vision Agent, 수술 전후 상태를 비교하는 Data Agent의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답하는 AI에서 ‘함께 연구하는’ AI로

AMIST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개발됐지만 구조 자체는 특정 진료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신경과의 EEG/EMG, 심장내과의 ECG와 심초음파, 종양내과의 항암 반응 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 분석 Agent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정보시스템 연결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자가 필요한 파일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지만, 향후 HL7 FHIR(국제의료정보교환표준,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기반으로 EMR과 연동하면 환자의 검사·치료 경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병원 내부 서버에서 작동하는 ‘온프레미스(On-premise)’ AI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AI가 연구자의 질문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시대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문을 찾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영상을 측정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담당한다면 연구자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와 ‘이 결과가 환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IST가 지향하는 ‘AI 동료 연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답을 만들어내는 AI가 아니라 연구자가 더 좋은 질문을 만들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는 AI. 의료 현장에서 AI가 맡을 다음 역할입니다.

‘마음지기’ 한 걸음 더 가까이

몸이 지쳤을 때 쉬어야 한다는 건 알아도,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는 쉽게 지나친다. 이러한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마음지기’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7월부터 전담 임상심리사가 합류해 상담 접근성을 높였고 9월부터는 번아웃과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와 고객만족팀 김서희 임상심리사를 만나 달라진 마음지기의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실>



(왼쪽부터)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고객만족팀 김서희 임상심리사.

마음지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안명희 기존의 주 2회 상담으로는 직원들의 상담 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 없었다. 7월부터 김서희 선생님이 전담하면서 상담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김서희 직무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고민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보다 전문적인 관리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명희 교수님이 전문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직원 요구도 조사에서 착안한 번아웃과 수면 개선 프로그램이 9월부터 시작된다. 임종 환자 애도 프로그램, 게이트키퍼 교육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주로 어떤 고민을 안고 오는지

안명희 업무가 과중하고 중증도가 높은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관계 갈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병원 비상운영 시기에는 고용이나 조직의 미래에 대한 불안, 직무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확 바뀌기도 했다. 조직이나 사회의 상황이 직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체감했다.

김서희 생산성이 중요한 기업에서는 성과나 인정에 대한 좌절, 그와 관련한 갈등 상담이 많다. 병원에서는 책임감과 헌신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진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인 만큼 긴장도가 높고 바쁜 업무에 감정 노동까지 더해져 소진이 큰 것 같다.

상담에서는 무엇을 돕는지

김서희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한 생각이나 감정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도록 돕고 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상담 후 “마음이 정리된 것 같다” “왜 힘들었는지 알게 된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다. 타인이나 상황을 바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내가 어떻게 나를 돌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명희 작은 실수에 자기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경험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마인드셋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담자의 경험을 충분히 듣고, 직원상담실을 찾게 된 계기와 상담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상담이 현실 문제를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의 역할과 한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함께 조율한다.

상담을 망설이는 직원들에게

안명희 의지나 노력의 문제로 여기거나 ‘이런 내용까지 상담하는 게 맞을까?’ 생각하는 분이 많다. 몸 건강을 위해 원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듯, 마음 건강을 점검하는 곳으로 마음지기를 이용하면 좋겠다. 비밀 보장도 신경 쓰고 있다.

김서희 어떤 고민을 가졌더라도 상담자는 내담자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조금 더 편하게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

열정과 땀으로 사람을 이어 주는 농구



의공팀 최기철 유닛 매니저



농구를 즐기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때 매주 일요일 아침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학교에 모여 함께 연습하고 경기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학교생활의 고민을 나눴고요. 마음껏 뛰고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면서 평소의 스트레스를 날리곤 했습니다. 이때부터 농구의 매력에 20년 넘게 푹 빠져 있어요.

농구의 매력은

농구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구공과 골대가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 땀을 흠뻑 흘릴 수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실내에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서로 패스하고 응원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며 경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즐거워요. 가끔 운동하기 싫은 날 코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신발끈을 묶게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웃음). 입사 이듬해부터 우리 병원 농구 동아리 ‘슛터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과 운동하며 친분을 쌓다 보니 업무에서 소통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코트에서 쌓은 팀워크가 병원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예전에 의공팀 직원들과 병원장배 농구 대회를 준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농구가 익숙하지 않은 후배들도 있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점심시간과 퇴근 후 틈틈이 연습했습니다. 아쉽게도 한 경기도 이기지는 못했지만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업무를 떠나 농구를 통해 진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슛터스’를 소개한다면

1998년에 창립된 농구 동아리로 매주 화요일 저녁 병원 앞 풍성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해외의학자도 참여하며 서로 다른 부서와 직종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농구 초보도 패스와 수비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즐겁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나의 취미생활’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특수검사팀 안수민 사원

평소 아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공연·전시 관련 글을 관심 있게 살펴봤다. 그렇게 관람하게 된 인생 첫 뮤지컬이 <위대한 개츠비>였다. 그전까지 뮤지컬은 내게 익숙한 문화생활이 아니었다. 하지만 막이 오르고 배우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생동감 넘치는 연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무대를 경험한 순간,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공연만의 매력과 에너지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다른 뮤지컬도 찾아보게 됐다. 그중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긴 작품이 <킹키부츠>다.

뮤지컬 <킹키부츠>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발 공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 찰리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드랙퀸 롤라가 만나 공장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갈등을 넘어 이해와 존중을 배워 가는 과정은 유쾌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특히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찰리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 모습이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나 역시 서울아산병원에 입사했을 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현장에서 환자를 마주하기 시작하니 업무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환자들의 불안과 아픔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고민도 많아졌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내 어려움을 먼저 알아봐 주는 선배와 동료들이 있었고, 환자들이 오히려 나를 격려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마지막 넘버인 'Raise You Up'은 <킹키부츠>의 메시지를 가장 잘 담아낸 장면이다.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삶이 지칠 때 힘이 돼줄게"라는 가사가 단순히 공연 속 노랫말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환자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처럼 들렸다. 노래를 들으며 앞으로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동료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환자에게는 작은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 넘버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공연의 마지막을 배우와 관객이 함께 완성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이어졌고 관객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배우들과 함께 공연의 일부가 되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배우와 관객이 같은 에너지를 나누는 순간은 <킹키부츠>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롤라와 같이 공연을 하는 엔젤 역할의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들과 호흡하는 순간의 생생한 현장감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공연이 끝나고 극장을 나설 때 마침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바닥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마지막 넘버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나도 모르게 눈 위를 뛰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날 들었던 노랫말은 눈처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힘든 순간마다 떠올리고 싶은 작은 위로가 되었다. 일상에 지쳐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사람,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찰리와 롤라, 그리고 신발 공장 사람들을 꼭 한 번 만나 보길 바란다.



킹키부츠

장르: 코미디, 드라마
관람시간: 155분
연출: 제리 미첼
작사·작곡: 신디 로퍼
극본: 하비 피어스타인

※ '컬처 & 라이프'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일 출근 기행

어린이병원간호팀 방애린 주임



"으아앙—"

유니폼을 갈아입고 갱의실을 나서자마자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나란히 줄지어 누워 있는 베지넷과 인큐베이터 속의 작은 아기들. 몽골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오느라 약 9일 만의 출근이었다. 봉사 가기 전에 담당했던 아기를 찾아가 본다. 어떤 아기는 건강하게 퇴원했고, 또 다른 아기는 이제 막 지구별에 도착해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다.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 같은 버스를 타고 어김없이 출근하는 하루. 2019년부터 근무하며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의 직장 서울아산병원이 이번 몽골 의료봉사를 다녀온 뒤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한국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몇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환자들과 어떻게든 진료를 받아보려고 진료실 앞에서 다투던 사람들, 그리고 진료를 보고 난 뒤에 감사함을 담은 반짝이는 눈빛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온 출근길은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했다.

서울아산병원에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합격의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때의 나는 이곳이 얼마나 간절한 곳이었을까. 잔뜩 긴장한 채 면접을 보던 그 면접실 앞을, 지금은 당연한 듯 아무렇지 않게 지나 신생아중환자실로 들어간다.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나의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몇백 킬로미터를 달려서라도 오고 싶은 간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몽골에서 돌아온 뒤 괜히 병원의 이곳저곳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된다. 늘 지나치던 복도와 익숙한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생각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 다시 돌아온 나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지만 그 일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내과간호2팀 김정안 사원
'헬스에디터 - 실내 공기의 진실, 폐암은 흡연자만의 질환이 아니다'를 읽으며 폐암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장주만 레지던트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 환자의 목소리 너머를 듣다' 속 응급간호팀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세심한 관찰력으로 환자를 돕는 모습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상의학과 정윤서 레지던트
'매일 출근 기행'의 김유진 인턴 선생님의 출근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인턴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원무팀 유지윤 대리
'AMC IN(人)sight' 코너를 읽으며 박준성 교수님의 진료 철학이 긴박한 소아 응급 의료 현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껴졌습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으려는 세심함과 부모의 불안까지 살피는 공감 능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안관리팀 김유진 사원
'감사우체통' 코너는 매번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호 '의료진을 향한 응원'에서도 의료진을 생각하는 환자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좋았습니다.